

가족치료 대화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대화분석적 연구*

조 용 길⁺

(한양대학교 강사)

유 명 이

(포천중문의과대학교 강사)

박 태 영⁺⁺

(승실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가족치료 상담자의 의사소통 능력향상을 위해 훈츠누어셔의 대화문법론을 기반으로 가족치료 전체 회기에 나타나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 의사소통의 전형적인 구조인 '대화연속체 원형'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선행연구를 통하여 가족상담의 과정단계를 초기, 중기와 종결단계로 분류하고, 각 과정단계의 부분적 기능단계를 분위기 조성단계, 가족사정단계, 인식변화 유도단계, 변화체험 확인단계, 종결단계로 나누어 대화연속체 원형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2명의 상담자와 30명의 내담자가 참여한 실제 가족치료 대화를 분석하여 각 기능단계에서 나타나는 대화연속체 원형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대화원형은 일반적인 가족치료의 대화구조를 분석하는 틀로서 상담의 목적에 맞게 가족치료를 구조화시키고 상담자들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주제어 : 대화연속체 원형, 대화구조, 기능구조, 대화문법론, 가족치료.

* 본 연구는 200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과제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5-079-AM0049).

+ 주저자

++ 교신저자

1. 서론

가족치료에 있어서 내담자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긍정적 대인관계를 유지시키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상담자의 대화능력을 전제로 하는데, 이러한 상담자의 능력은 무엇보다도 합리적 대화의 진행과 관련이 있는 대화구조적 지식을 요구한다. 따라서 내담자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자는 가족치료 대화의 전형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상담자는 가족치료 대화를 구성하는 전체 기능단계와 각각의 부분 기능단계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대화 연속체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나는 자연대화 속에서 대화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와 원리체계를 발견함으로써 대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대화분석 방법(이창덕, 1998) 주로 언어학 분야에서 실시되어 왔지만, 가족치료사들의 의사소통 기술과 전략을 분석하고 발전시키는데 유용하다는 견해가 있다 (Friedlander, Heatherington, and Mars, 2000; Coutuer and Sotherland, 2006). 아울러 대화분석 방법은 가족치료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과정에서 훈련생들에게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한 직관력을 제공하고 의사소통 기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직접적이고 명확한 수퍼비전을 해 줌으로써 수퍼바이저들의 훈련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한다(Ratliff, Wampler, and Morris, 2000; Strong, 2003).

최근에 언어학분야 이외에서 대화분석 방법론을 활용한 여러 연구들이 실행되고 있다. 가이슬러 (Geisler, 2002)는 의사와 환자 간의 대화가 보다 잘 실현될 수 있는, 즉 성공적인 진료에 부합하는 대화형식을 연구하였고 회네/데퍼만(Hoene/Deppermann, 2004)은 정신질환을 앓는 내담자 치료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서사적 정체성의 재구성과 서사 인터뷰의 분석을 위한 이론과 방법론을 기술하였다. 박일환(2003)은 진료실에서 가정의학과 전공의사의 면담 내용을 분석하여 면담 중 환자 중심적 대화와 가족 중심적 대화가 관찰되는 빈도와 그 내용을 기술하였다. 이두원(2000)은 대화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의사와 환자 간 의사소통 행위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다. 또한 이두원(2002)은 대화분석을 통하여 부부간의 대화행위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는데 특히 부부간의 의사소통 문제의 유형을 조사하였다. 한편, 봉일원(2002)은 기업체 내에서 실시되는 상담대화의 내용을 언어학적으로 분석하였다. 가족치료 분야에서 실시한 대화분석적인 연구로는 가족치료의 첫 회기에서 발생하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대화원형을 분석한 연구(유명이, 2006)와 가족치료에서 사용되는 공감의 언어적 표현에 관한 연구(유명이, 2007) 그리고 가족치료에서 나타나는 상담대화의 대화유형에 대한 연구(조용길, 2006)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가족치료에서 대화분석 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초보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가족치료 대화의 전형적 구조를 파악하고 설명하는데 언어학 분야에서 개발된 대화분석 방법론을 활용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언어학적 대화분석 방법론, 즉 훈츠누어셔(Hundsnurscher, 1994)로 대표되는 “대화문법론”을 기반으로 가족치료 전체 회기에 나타나는 내담자와 상담자 간 의사소통의 전형적인 구조인 “대화원형(Dialog prototype)”을 기술하고 설

명해 보고자 한다.

실제 가족치료 대화들은 대화구조 면에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들을 보인다. 이는 우선 상담에 참여하는 내담자의 숫자에 따라라도 다양한 구조를 보인다. 일대 일 대화뿐만 아니라 일대 다수의 대화가 실제 가족치료에서 흔히 나타나며 이는 다양한 대화구조를 야기시킨다. 또한 가족치료 대화는 치료모델이나 상담자 개인의 성향에 따라 대화의 기법이나 전개구조에서 매우 다양하게 펼쳐진다. 예컨대 “지시적 상담”의 기법을 추종하는 자들에겐 상담자 주도의 대화가, 반면 “비지시적 상담”의 기법을 추구하는 자들에겐 내담자 중심의 대화가 전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한승호/한성열 역 1998: 43). 또한 내담자 문제를 다루는 상담자 개인의 성향에 따라 대화의 전개구조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내담자를 효율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사용된 대화전략, 즉 공감이나 파워행사의 유무에 따라 매우 이질적인 대화구조가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실제 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모든 대화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일반적 규칙체계 또는 연역적으로 도출된 틀에서 출발하는 것이 유용하다.

대화분석을 위한 연역적 틀로 제시되는 대화원형은 대개 일대 일 대화에 초점을 두고 재구성된 구조로서 두 대화상대자들 사이에 전개될 수 있는 최소한의 합리적 기능구조와 관련된다. 이 연역적 틀은 가족치료가 본질적으로 지향하는 대화목적에서 출발하며 이러한 목적에 상응하는 합리적 대화구조로서 가족치료의 일반적 사례들을 설명할 수 있는 토대로써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내담자 둘 내지는 셋일 경우 그 중에서 상담자는 주로 핵심적 내담자와의 상담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 내담자들은 보조적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즉 보조적 역할의 내담자들은 대개 핵심 내담자의 변화를 위해서 상담에 임하게 되고 상담자와 핵심 내담자 사이의 대화에 단지 간헐적으로 끼어드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수의 내담자가 참여하는 상담 역시 전체적 기능구조에 있어서는 일대일 상담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다수의 인원이 참여해서 나타나는 대화구조의 외형적인 차이들은 대화원형의 변이형(變異型)들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치료모델이라든지 상담자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대화구조들은 대화원형의 확대된 변이형들로 인식되고 이러한 변이는 특정한 모델이나 대화전략에 근거지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화원형이 가진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화원형의 틀은 차후 가족치료의 실제에 접근하고 이러한 실재를 분석하고 설명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즉 우리는 대화원형을 단순히 실제대화를 온전히 파악하는 틀이 아니라 실제대화의 기저 구조를 조망하게 하는 기본적인 틀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고에서 제시하는 가족치료의 대화원형은 실제대화를 반영하고 설명하는 틀이 아니라, 실제대화에 분석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틀이 될 것이다.

2. 연구방법

이 장에서는 대화원형 구축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언어학적 대화분석론의 하나인 “대화문법론”에 대해서 간략히 기술함과 동시에 대화원형 구조의 확인 및 검증에 위한 자료 확보에 대해서 언급하겠

다.

1) 대화분석 방법론: 대화문법론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인 “대화문법론”을 설명하기 위해 박용익의 「대화분석론」(2001)을 중심으로 귀납적 대화분석과 연역적 대화분석에 대한 특징적인 면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대화분석론은 대화의 표층구조가 구성 원칙도 체계도 없는 발화의 혼합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현상의 이면에는 대화의 정연한 구성원리와 체계가 숨겨져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박용익 2001: 15). 대화분석의 주된 과제는 대화자들이 발화시 의식하지 못하는 대화의 심층적 구성원리와 구조를 기술하고 재구성하여 가시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언어학적 대화분석의 큰 갈래는 귀납적 대화분석과 연역적 대화분석으로 나뉠 수 있다. 귀납적 대화분석은 분석자의 선형적 지식과 분석에 대한 조건을 배제한 채 연구대상인 실제대화의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관찰하여 거기에서 규칙적으로 발견되는 것을 찾아내고, 더 나아가 그 안에 내재해 있는 대화의 규칙과 구성원리를 재구성하는 것에 집중한다. 즉 귀납적 대화분석에서는 대화를 언어적 및 비언어적 상호작용으로 간주하고 대화의 질서를 생산해 내고 있는 조직과 규율, 구조를 발견하는데 관심을 둔다(고문희·김춘미·문진하·이명선 역, 2005:2).

반면 연역적 대화분석은 분석가에 의해 선형적, 직관적으로 재구성된 이론이나 모형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실제 대화의 기저에 정연한 규칙체계가 있으며 대화규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대화자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실제 대화를 생성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 혹은 대화의 규칙체계를 기술하고 분석하며 설명하는 것이 연역적 대화분석의 핵심적 목표이다.

본고의 이론적 토대인 “대화문법론”은 연역적 대화분석의 절차를 따른다. 먼저 분석자의 선형적, 직관적 대화지식을 바탕으로 대화가 추구하는 의사소통 목적을 규정하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화의 구조 즉 대화의 원형을 도출한다. 대화의 의사소통 목적은 하나의 최소 대화구조뿐만 아니라 때때로 복합적인 부분 기능단계를 거쳐서 실현된다. 그래서 예컨대 ‘질문기 대화’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길 정보를 얻고자 하는 목적은 대개 질문과 대답의 단순한 대화구조를 요구한다. 반면 가족치료 대화의 경우 가족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사소통 목적은 최소의 대화구조로서 이행될 수 없고 대개 여러 부분적 기능단계(예컨대 라포형성- 가족사정 - 진단 - 설득 순의 기능적 절차)를 거쳐서 실현될 수 있다. 이렇듯 의사소통 목적은 단순한 대화구조(예컨대 질문-대답 또는 지시-수용)나 혹은 복합적 대화구조, 즉 여러 기능단계(functional phase)와 각 기능단계에서 나타나는 대화구조들을 통해서 실현된다. 연구자에 의해 선형적, 객관적으로 재구성된 대화원형은 실제대화를 비교분석과정을 통해 각 기능단계를 구성하는 대화연속체를 분석함으로써 전형적인 대화원형과 나아가 대화참여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의사소통 전략을 기술하게 된다.

대화원형이란 실제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여러 형태로 실현되는 모든 실제대화의 기저 구조이며 이

는 최소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이상적 대화구조를 말한다(박용익 2001: 286). 즉 대화원형은 문법적으로 잘 짜여진 문장처럼 논리적으로 잘 구성된 정형화된 대화구조이다. 하나의 문장이 같은 의미의 다양한 문장들로 바뀌어 표현될 수 있듯이 대화원형은 다양한 정형화된 논리적 대화구조들을 포함한다. 그래서 예컨대 ‘가족사정’의 기능단계의 경우에 상담자의 질문에 대해서 내담자는 대답, 침묵 또는 되묻기 등의 반응을 보일 수 있고 각 반응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담자의 언어행위를 기능적으로 제한한다. 이렇듯 특정한 의사소통 목적을 위해서 전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대화의 가능성을 대화원형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대화문법론은 특정한 의사소통 목적을 실현하는 전형적인 대화구조, 대화원형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 집중한다.

2) 자료수집, 녹취 및 연구대상자 선정

가족치료의 대화원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분석자 개인의 합리적 사고나 직관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 자료의 검토도 필요하다. 먼저 연구자가 이론 및 선행연구를 토대로 대화원형을 구축하고, 실제 대화자료를 통해 구축된 대화원형의 세부구조들은 확인과정을 밝게 됨으로써 가족치료 실재를 반영하는 보다 적절한 대화원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위해 연구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들의 실제대화 자료를 수집, 녹취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따라서 S대학교 가족치료센터와 K가족치료센터에서 상담에 참여한 가족치료 상담자 2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우선 가족치료 상담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여 자료 수집을 위한 협조 동의를 받았다. 그리고 상담자들이 기존에 내담자에게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대한 구두동의를 얻어 녹음, 녹화해 두었던 상담 사례들 중에서 상담내용을 검토하여 연구를 위해 적절한 자료라고 판단된 경우 내담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다시 설명하고 내담자가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 그 녹음, 녹화자료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9사례이며 대화에 참여한 상담자는 2명이고 내담자는 30명이었다.

녹음, 녹화된 자료들은 대화참여자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연구목적에 맞게 언어적 및 비언어적 대화내용을 특정한 기호를 이용하여 정밀하게 전사하는 전사약정을 마련하고, 이 전사약정 기록방법을 익힌 훈련된 2명의 전사자들에 의해 문자로 전사되어 연구 자료로 구축되었다. 전사된 자료는 내담자의 실명을 보호하기 위해 코드로 목록화하였는데, 예를 들어 <F07001>은 가족치료대화(F), 2007년도에 수집된(07) 1번째 자료(001)를 의미한다.

위와 같이 몇몇 제한된 연구기관 및 연구참여자를 통하여 얻은 자료들은 연역적 분석방법에 의해 창출된 대화원형의 구조를 단지 확인 및 검증하는 데 기여를 할 뿐이다. 제한된 자료를 통해서도 결코 일반적인 틀인 대화원형의 구조가 도출될 수 없기 때문이다.

3. 연구결과

1) 가족치료의 기능단계 구조 : 가족치료의 대화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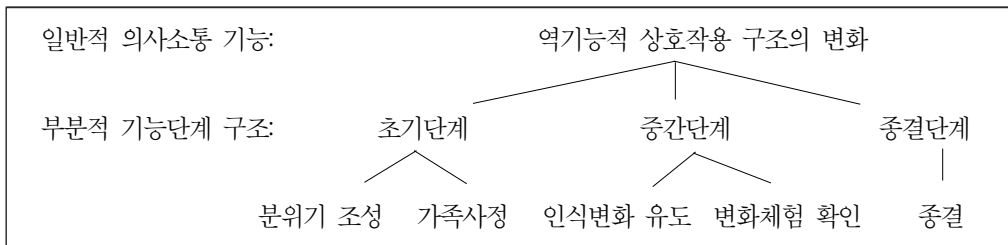
가족치료는 가족 간의 상호작용 안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상담자와 가족과의 상담과정에서 보이는 상호작용을 모델링으로 하여 가족들이 건설적인 상호작용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혜숙, 2003: 47-48). 즉 가족치료는 본질적으로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는 상담자의 특정한 과업이나 치료모델에 상관없이 모든 가족치료에 있어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틀이며 가족치료 분석의 출발점을 이룬다. 이러한 일반적 틀은 상응하는 전형적인 대화의 전개구조 내지는 기능단계 구조를 통해서 실현된다. 그래서 설리반(Sullivan)은 모든 상담은 발단(inception), 예비조사(reconnaissance), 구체적인 탐구(detailed inquiry), 종결(termination)로 구성된다고 하였다(이장호, 1990: 7). 한편, 글래딩(Gladding, 2002)은 가족치료의 과정을 전화에 의한 초기 접수단계, 초기단계, 중기단계, 종결단계로 구분하였다(이영분 외, 2008 재인용).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족치료 과정의 거시구조는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초기단계는 내담자와 상담자의 첫 번째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초기과정으로써 첫 상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담자와 약속을 맺는 순간부터 서너 번의 상담을 통하여 진단과 목표 설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말한다(이화여대, 1997: 387). 초기단계는 상담의 전체적인 기간과 비례하게 하지만 대개 3회기 정도까지 이뤄지는데 최근에 4회기 이내의 단기상담이 선호되면서 초기 단계를 1회기에 마치는 경우가 많고 상담기간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첫 회기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가족치료 첫 회기 상담의 구조는 내담자와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고 상담에 대한 소개를 제공하는 분위기 조성단계, 가족원들로부터 문제를 명확히 확인하고 사정을 하는데 초점을 두는 문제 규명단계, 상담자가 문제를 정리하여 해석을 제공하고 가족들과 목표를 합의하는 목표설정단계, 상담 일정 및 참여자들의 역할을 규정하는 계약단계 그리고 종료단계로 전개된다(유명이, 2006: 238-240). 이 구조는 가족치료 문헌들이 초기단계의 전체적인 구조로 설명하고 있는 사قم, 사정, 목표설정, 계약의 과업과 일치하고 있다(김혜숙, 2003: 396-406; 이화여대, 1997: 387-403). 초기단계에서 상담자의 가장 주요한 과업은 관계형성이다(엄예선, 1994: 262). 상담의 초기 단계는 상담자의 적극적인 역할수행에 의해 상담이 유도되며 이로써 내담자와의 신뢰를 형성하게 되는데 특히 이 단계는 상담의 전체적인 구조와 예후를 결정하게 하므로 상담자의 준비된 전문성이 가장 많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중간단계는 변화를 위한 주된 작업이 행해지는 단계로써 초기와 말기과정에 비해 보다 굳건한 내담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가족이 많은 변화를 경험하도록 이끌고 돕는다. 상담자는 변화를 위한 전략을 짜고 그 전략과 더불어 수많은 기법들의 적극적인 사용이 요구되며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중간단계 동안 상담자가 어떤 작업을 행할 것인가가 결정된다. 중간단계의 상담구조는 개입수준에

따른 단계, 저항다루기 단계, 과제설정 단계, 치료과정 점검 단계 등으로 구성된다. 상담자는 개인 구성원의 드러난 문제수준, 가족원 간의 관계 수준, 전체 가족체계 수준에 따른 개입의 수준과 단계를 조절한다. 저항다루기는 중간단계의 주요과업이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의식적 및 무의식적 저항에 대한 대처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저항은 개입과정에서 수차례 반복되어 나타날 수 있다. 상담자는 과제부여를 문제해결 방안을 유지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하기 위해 과제부여, 점검, 조정을 주요한 상담의 과정으로 삼게 된다. 상담자는 상담횟수를 점차 줄여감으로써 상담의 중반이 지나갔음을 알려 주고 내담자 가족은 이러한 변화를 향상의 표시로 해석하게 된다. 상담자는 적극적으로 실행된 상담자의 개입과 내담자의 해결방안을 점검하면서 목표 달성여부와 목표수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점검하는 활동을 시도하게 되며 이로써 자연스럽게 종결에 대한 준비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마지막 종결단계이다. 가족치료의 과정은 초기, 중기, 말기과정을 뚜렷하게 분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족치료의 모델들은 말기과정 특히 종결의 시기 및 내용에 대한 상이한 견해를 갖고 있다(이화여대, 1997: 435). 상담자와 가족이 합의하에 순조롭게 종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치료 도중에 가족에게 종결을 권하거나 다른 상담자로 옮길 것을 권유해야 될 경우 또는 가족원에 의해 종결이 통보될 경우 등이 있다. 상담에서 조기 종결하는 경우는 상담 초기단계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해결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회기와 목표에 대한 합의없이 상담을 시작한 경우나 상담진행 단계에서 상담자가 상담을 지나치게 주도하거나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경우, 그리고 내담자가 상담자의 상담방식에 대한 불편감을 느꼈거나,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반응과 태도를 보인 경우들이다(손유미·정남운, 2005: 538). 종결단계는 종결준비 단계, 종결 진행 단계, 사후관리 단계로 구성된다(김혜숙, 2003: 419-420; 이화여대, 1997: 446-448). 종결의 준비를 위해서 상담자는 종결가능성에 대해 탐색하고 내담자에게 계약내용을 상기시키며 종결통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종결 진행 단계에서는 치료과정 및 목표달성 평가, 종결 시기 제시, 가족의 다짐 또는 목표세우기, 사후관리 계약, 다른 기관 연결 등의 내용이 다루어진다. 상담자는 종결과정에서 내담자 가족성원의 분리와 의존에 관한 정서를 다루며 가족에게 상담자의 지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담의 종결 후 필요한 경우 전화 또는 편지로 사후관리가 실행되는데 종결과정에서 내담자와 협의 하에 결정된다.

이상에서 논의한 가족치료 상담의 진행구조는 기능에 따라 다음 그림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참조: 조용길 2006).



<그림 1> 가족치료의 일반적 의사소통 기능과 부분 기능단계 구조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위의 구조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조용길 2006: 218).

왜냐하면, 실제로 가족치료의 모든 형태들이 한결같이 위와 같은 기능단계들을 거쳐서 순차적으로 상담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가족치료 사례들에서 초기단계에서 관계촉진을 위한 분위기 조성단계가 생략되는 대화구조를 보여주거나, 또는 분위기 조성과 종결의 기능단계를 최소한 축소 내지 생략하는 구조를 보여주기도 한다(조용길 2006: 218). 아울러 실제 사례에서 위에서 제시한 부분적 기능단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가 또한 많다. 예컨대 가족사정의 기능단계 속에서도 다른 기능인 분위기 조성과 인식변화 유도의 기능도 종종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에 제시한 가족사정 기능단계는 오로지 가족사정만이 등장하는 단계가 아니라 다른 어떤 기능보다 가족사정이 주도적이고 핵심적 역할을 하는 단계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조용길 2006: 218). 즉 위에 제시한 가족치료의 기능구조는 상징적 구조로서 실제 사례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변형될 수 있고 각 부분 기능이 혼재되어 복잡한 양상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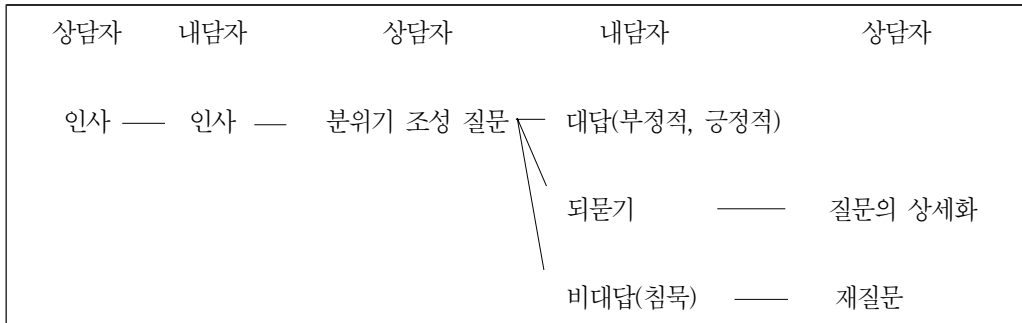
2) 가족치료의 기능단계별 대화연속체 원형

위에서 언급했듯이 가족치료의 부분적 기능단계인 ‘분위기 조성’, ‘가족사정’, ‘인식변화 유도’, ‘변화 체험 확인’ 그리고 ‘종결’은 실제 상담사례에서 다양한 가중치를 가지고 나타난다. 그래서 ‘분위기 조성 단계’와 ‘종결단계’는 대부분 실제 상담에서 자주 생략되거나 나타난다 하더라도 매우 단순하고 전형적이며 진행되는 기간도 짧은 반면, ‘가족사정’, ‘인식변화 유도’ 그리고 ‘변화 체험 확인’은 상대적으로 진행되는 기간이 길고 매우 역동적인 대화구조를 통해서 표현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가족치료의 전 과정을 기술하되 핵심적 과정인 ‘가족사정’, ‘인식변화 유도’ 그리고 ‘변화 체험 확인’에 중점을 두고 각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최소한의 대화연속체 원형을 기술하고자 한다.

(1) 분위기 조성 단계

가족치료에 처음 참여하는 가족원들이 낯선 상담환경에 긴장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약간의 사교적인 대화를 시작하면 가족원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상담자 및 가족원의 자기소개와 상담에 대한 공식적인 사항에 대해(상담시간의 길이, 상담비, 상담비의 지불방식, 상담의 빈도, 비밀보장성, 의뢰한 사람에 대한 언급, 전화대화가 있었을 경우 그 가족원과의 대화확인 등) 언급하며, 문제가 무엇이며 가족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묻고 그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도록 돕는다. 상담자 또한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 기대하는 바를 설명한다.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은 내담자의 긴장을 해소할 뿐 아니라 상담자와 상담과정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기 때문에 가족사정 및 변화노력을 위한 개입과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전체적인 상담의 초기과정 뿐만 아니라 매회기마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상담자들의 전략이 수행된다. 아울러 상담이 시작되기 전 전화면담이나 의뢰서를 통해 내담자의 정보가 상담자에게 제공되어 상담이유가 명확히 정의된 경우, 단기상담으로 개입기간이 짧은 경우에 분위기 조성단계는 매우 간결하게 실행될 수 있다. 따라서 분위기 조성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화구조는 대개 단순하고 전형적인 질문과 대답의 연속체가 주류를 이룬다. 예컨대 내담자의 신

상 및 상담자에게 기대하는 바를 묻는 것에 의하여 대화를 시작하고 이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으로 대화는 진행된다.



<그림 2> 분위기 조성단계에서 핵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대화연속체 원형

여기에서 나타나는 대화연속체 가능성 중에 첫 번째인 ‘인사 - 인사 - 분위기 조성 질문 - 대답’의 구조에 상응하는 사례를 제시한다. 나머지 되묻기와 비대답으로 이어지는 연속체는 다음에 다루어질 가족사정의 기능단계에서도 유사한 구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 대화연속체: 인사 - 인사 - 분위기 조성 질문 - 대답

<사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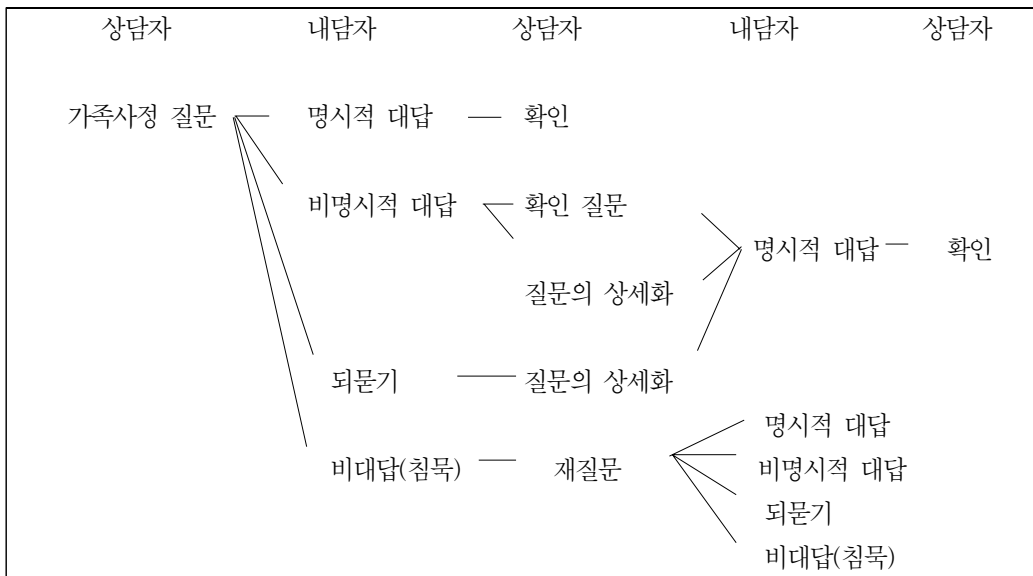
상담자: *안녕하세요 (인사)*
 내담자: *안녕하세요 (인사)*
 상담자: *날씨가 참 덥죠?(분위기 조성 질문)*
 내담자: *네(대답)*

위의 대화는 상담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구조로서 낯설고 서먹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상담자의 질문이 주축이 된다. 위 구조는 분위기 조성 단계에서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연속체로서 상호간 친밀감을 구축하는데 기여한다.

(2) 가족사정 단계

분위기 조성의 단계가 끝나면 가족사정이 시작되는데 이 단계는 내담자가 상담을 요구하게 된 구체적인 가족의 문제를 확인하는 사정과정으로써 상담자는 내담자가 상담을 요청하게 된 이유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문제가 발달해온 과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방식 등을 질문한다. 이 과정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말을 끊지 않고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하며 언어적/비언어적인 반응을 통해 내담자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한다.

일단 내담자의 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설명이 진행되면 상담자는 적극적인 질문으로 문제의 내용을 명료화하고 구체화하면서 질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수집해 나간다. 즉, 가족치료의 목적에 맞게 내담자가 내놓은 문제가 가족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가족들이 얼마나 관여되어 있는지, 문제로 인해서 가족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가족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탐색한다. 정확한 문제규명은 좋은 치료계획을 세우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상담자는 일관적이고 명확한 질문기법을 사용해 이 단계가 지지부진하게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림 3> 가족사정 단계에서 핵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대화연속체 원형

- 대화연속체: 가족사정 질문 - 명시적 대답 - 확인

<사례 2> :

상담자: 부모님은 얼마나 자주 싸우셨어요?(가족사정 질문)

내담자: 자주 싸우신 거 같아요 일주일에 몇 번씩 싸우셨던 거 같아요(명시적 대답)

상담자: 그래요(확인) <F07008>

가족사정을 위한 질문에 대해서 내담자는 위와 같이 명시적으로 대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담자의 관점에서 볼 때 불충분하고 비명시적인 대답이 될 수도 있다. 아래의 연속체들은 이러한 경우를 잘 보여준다.

- 대화연속체: 가족사정 질문 - 비명시적 대답 - 확인질문 - 명시적 대답 -확인/다른 질문

<사례 3> :

상담자: 어렸을 때 성폭행 당했던 적은? (가족사정 질문)

내담자: 없어요 (비명시적 대답)

상담자: 전혀 없었어요? (확인질문)

내담자: 예, 아! 한번 있었어요 한번인가 두 번인가? 추행이었어요(명시적 대답)

상담자: 아, 예 (확인)

- 대화연속체: 가족사정 질문 - 비명시적 대답 - 질문의 상세화 - 명시적 대답 - 확인

<사례 4> :

상담자: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떠셨어요? (가족사정 질문)

내담자: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비명시적 대답)

상담자: 제 말은 서로 대화하는데 문제는 없었냐는 거예요? (질문의 상세화)

내담자: 서로 대화하는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명시적 대답)

상담자: 그래요 (확인)

앞에서 논의한 <사례 2>에서와는 다르게 위의 두 연속체는 내담자의 비명시적 대답이 나타난다. 내담자의 대답이 명시적이냐 또는 비명시적이냐 하는 기준은 상담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만 대답의 표현유형을 통해서가 아니다. 그래서 위의 예에서 ‘없었어요’,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는 명시적인 표현유형에 해당하지만, 상담자는 이런 표현을 내용적으로 비명시적인 대답으로 해석하여 확인질문을 하거나 또는 자신의 질문을 좀 더 구체화하는 단계를 밟게 되는 것이다. 즉 내담자의 대답이 명료하지 않거나 또는 내용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구체적인 대답이 아닌 애매모호한 대답으로 표현되는 경우 이를 상담자는 비명시적인 대답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확인질문이나 질문의 상세화로 인하여 대화는 좀 더 복잡하게 진행되는 구조를 보인다. 그 밖에 가족사정을 위한 질문은 되묻기나 혹은 비대답인 침묵을 통해서 대응되기도 한다.

- 대화연속체: 가족사정 질문 - 되묻기 - 질문의 상세화 - 명시적 대답 - 확인

<사례 5> :

상담자: 결혼생활은 몇 년이나 되셨어요? (가족사정 질문)

내담자: 네? (되묻기)

상담자: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질문의 상세화)

내담자: 저희 결혼은 지난 12월 2일날 했어요 그러니까 1년 됐네요 (명시적 대답)

상담자: 예, 그래요(확인).

<F07003>

• 대화연속체: 가족사정 질문 - 비대답(침묵) - 재질문 - 명시적 대답 - 확인

<사례 6> :

상담자: 남편하고 성관계는 어떠세요?(가족사정 질문)

내담자: (머뭇거리면서).....(침묵)

상담자: 남편하고 성관계는 원만한 편이세요?(재 질문)

내담자: 예, 괜찮아요 (명시적 대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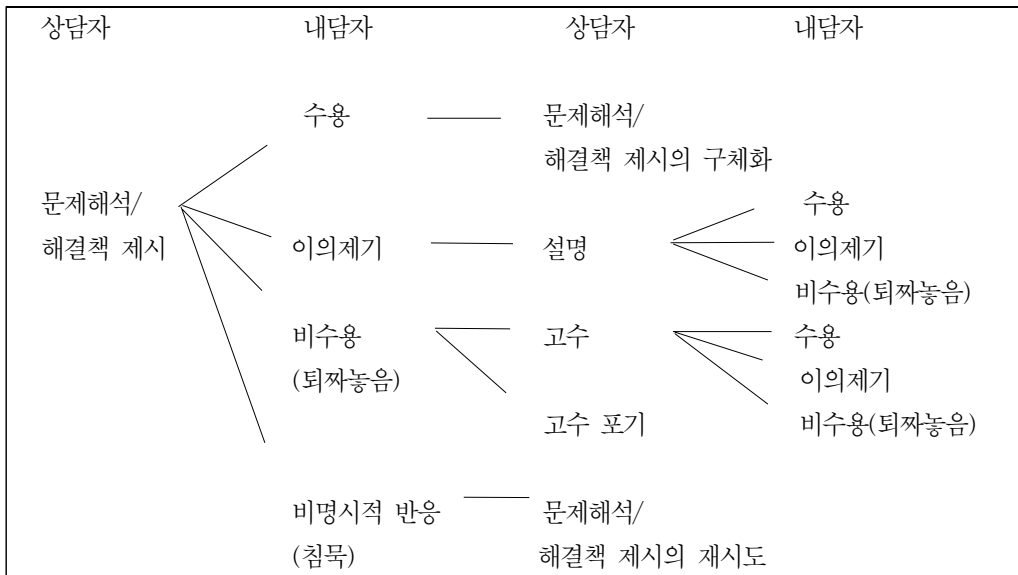
상담자: 그래요 (확인)

<사례 5>에서는 가족사정을 위한 상담자의 질문을 청각적으로 못 듣거나 상담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서 내담자는 이에 되문기를 하고 결국 상담자가 자신의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구조가 나타난다. <사례 6>은 상담자의 질문에 대해 내담자가 대답하기 쑥스러워 침묵하자 상담자가 자신의 질문을 반복하는 구조로서 상호간 신뢰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가족치료 초기단계에서 종종 등장한다.

이상 논의한 가족사정 단계를 통해서 가족구조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한 상담자는 이러한 가족구조에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인식변화 유도단계를 접하게 된다.

(3) 인식변화 유도단계

가족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결정하고 나서는 상담자는 문제가 되는 내담자와 가족구성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인식변화 유도 단계는 변화를 위한 주된 작업이 행해지는 개입의 중심단계로써 상담의 속도가 급속히 상승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상담자는 가족사정을 통해 발견된 내담자와 가족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가족구성원들에게 가족문제를 이해시키며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화방식을 사용하도록 설득시킨다. 따라서 이 단계는 가족구성원들에 대한 인식과 행동방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단계이다. 상담자는 전체 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내담자와 가족구성원들의 변화를 위한 전략을 짜고 그 전략과 더불어 많은 가족치료 기법을 사용하게 된다. 상담자는 변화에 대한 내담자와 가족구성원들의 저항을 다루며 내담자와 가족구성원들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생활에 일반화할 수 있도록 과제를 부여하게 된다. 이 기능단계에서 나타나는 핵심적 대화연쇄는 문제해석 및 해결책 제시와 수용/비수용의 구조로서 문제해석은 대개 주장이나 혹은 주장과 조언의 발화구조로 이루어진다. 이 구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화연쇄의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그림 4> 인식변화 유도단계에서 핵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대화연속체 원형

위에 제시된 대화연쇄구조들을 실제 가족치료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연구자는 각각의 대화 연쇄구조에 상응하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대화연속체 원형을 설명하겠다. 먼저 대화연속체 ‘문제해석’ - ‘수용’ - ‘문제해석의 구체화’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대화연속체: 문제해석 - 수용 - 문제해석의 구체화

<사례 7> :

상담자: *그건 어머니 생각이죠 누굴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내 방식은 나한테만 옳은 거예요 (문제해석).*

내담자: *그걸 다 알아요 알면서 못하는 거죠(수용).*

상담자: *자연이 제가 두 번 만났는데 괜찮아요 괜찮은 애예요 문제는 너무 휘둘렸어요 (문제해석의 구체화).* <F07003>

상담자는 딸의 문제를 보는 내담자(어머니)의 잘못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직접화법의 강한 어투를 사용하여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하고, 이에 대해 내담자는 동의하는 수용의 자세를 보인다. 그리고 상담자는 내담자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문제에 대한 해석을 더한다. 위의 대화연속체는 ‘인식변화 유도단계’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구조로서 내담자를 설득하는 기본구조를 형성한다. 다음은 상담자의 문제해석에 대해서 내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대화연속체, 즉 ‘문제해석’ - ‘이의제기’ - ‘설명’ - ‘수용’의 구조를 살펴보자.

• 대화연속체: 문제해석 - 이의제기 - 설명 - 수용

<사례 8> :

상담자: *애가 성적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엄마가 그러한 방식으로 성적을 올리고
깨닫게 하는 것 같지만, 아이는 더 상한다는 거죠(문제해석)*

내담자: *그것은 감정의 문제 아닌가요?(이의제기)*

상담자: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아이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아이와의 관계를 더 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변화의 초점을 두어야 하나냐는 거예요(설명)*

내담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거는 알지만 잘 안되고 힘들어요(수용)* <F07007>

상담자는 딸이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내담자(엄마)의 잘못된 양육방식에 기인한다고 문제해석을 하나 내담자는 문제를 딸 자신이 해결해야 할 감정의 문제로서 보고 상담자의 문제해석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에 상담자는 내담자를 설득시키기 위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결국 내담자의 수용을 이끌어낸다. 이 구조 역시 ‘인식변화 유도단계’에서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대화연속체로서 내담자를 설득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담자의 문제해석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의 의사를 밝히는 ‘비수용’의 반응화행으로부터 전개될 수 있는 대화연속체 역시 내담자 설득을 위해 흔히 사용되는 구조이다. 다음으로 대화연속체 ‘해결책 제시’ - ‘비수용(퇴짜놓음)’ - ‘고수’ - ‘수용’을 살펴보자.

• 대화연속체: 해결책 제시 - 비수용(퇴짜놓음) - 고수 - 수용

<사례 9> :

상담자: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자녀들이 술이나 도박 등 여러 형태로 어긋나게 돼요
그러니 먼저 부부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해결책 제시)*

내담자: *스트레스는 자기 카드빚 때문에 받는 거죠(비수용)*

상담자: *그건 어머님 생각이시구요(중략...) 부부관계가 좋아지면 자녀들이 좋아집니다
부모가 완벽주의자이면 애 망칩니다(고수)*

내담자: *그러면 제가 고치면 되는 거예요?(수용)* <F07003>

문제해결의 핵심을 내담자의 부부관계를 회복하는데 두는 상담자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자 곧바로 보다 강한 어투(예: 부모가 완벽주의자이면 애 망칩니다)의 고수화행이 수행되고 있다. 이는 결국 내담자의 수용을 이끌어내는 기능을 했다. 이와는 반대로 내담자의 ‘비수용’에 대해 고수를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등장한다.

• 대화연속체: 문제해석 - 비수용(퇴짜놓음) - 고수 포기

<사례 10> :

상담자: 아버지는 연주를 생각하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어머니는 또 연주를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다 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오히려 못 나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문제해석)

내담자: 저희는 대화는 잘 나는 편인데요 (비수용)

상담자: 아, 그래요... 그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고수포기/질문)

<F07001>

위에서 상담자가 자신의 문제해석을 고수하는 대신에 내담자 스스로 인식의 변화에 도달하게끔 하기 위해 질문의 화행을 던지고 있다. 이러한 대화구조 역시 내담자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 대화에서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지만 가능한 대화구조로서 상담자의 문제해석에 대해 내담자가 긍정 또는 부정의 분명한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고 어떠한 의사표현도 하지 않고 침묵하기 때문에 내담자의 생각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이다. 따라서 상담자는 자신의 문제해석을 되 풀이하게 된다.

• 대화연속체: 해결책 제시 - 비명시적 반응(침묵) - 해결책 제시의 재시도

<사례 11> :

상담자: 먼저 부부관계를 좋게 해야 합니다. 자녀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해결책 제시)

내담자:(비명시적 반응: 침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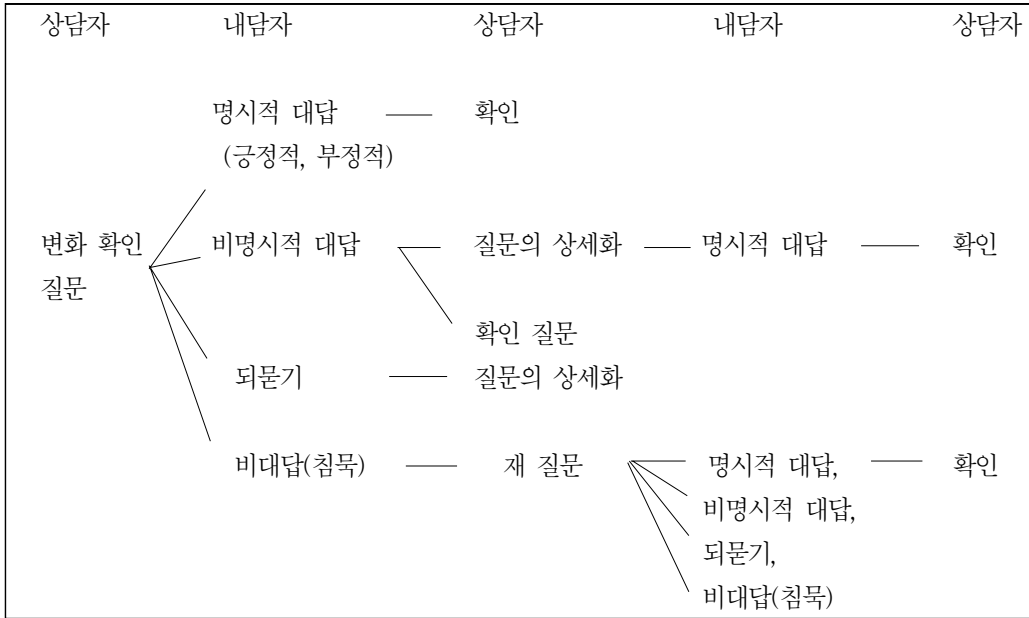
상담자: 먼저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부관계가 좋아지면 자녀들이 좋아집니다.

(해결책 제시의 재시도)

(4) 변화 체험 확인단계

이 단계에서는 전 단계인 ‘인식변화 유도단계’에서 시도된 내담자의 인식변화가 실제의 삶에서 행동의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 가족구성원이 기존에 그가 지니고 있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예컨대 권위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비 권위적인 의사소통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다른 가족구성원들에게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다. 가족 간의 관계는 훨씬 더 부드러워질 것이고 자유로운 대화가 오고 갈 것이다. 즉 가족구성원 개인의 작은 행동의 변화가 전체 가족구조를 순기능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갖는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스스로 행동의 변화를 체험하고 있는지 혹은 다른 내담자로부터 달라진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한 핵심적 구

조는 변화 체험 확인을 위한 질문과 대답의 연속체가 될 것이다. 변화체험 확인을 위한 질문으로부터 전개될 수 있는 대화연속체의 가능성은 위에서 논의한 가족사정 단계의 연속체와 대동소이하다.



<그림 5> 변화 체험 확인단계에서 핵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대화연속체 원형

각각의 대화연속체를 보여주는 사례의 예를 들면, 우선 연속체 ‘변화 확인 질문’ - ‘명시적 대답’ - ‘확인/다른 질문’은 다음의 예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 대화연속체: 변화 확인 질문 - 명시적 대답 - 확인

<사례 12> :

상담자: 지금은 어떠신 것 같아요?(**변화 확인 질문**)

내담자: 지금은 덜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면서 그동안 제가 아빠 역할, 남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많이 이해를 하는 편이죠 요즘은 제가 화 나서 나가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감정을 누그러 트리고 많이 참습니다. (**명시적 대답**)

상담자: **아! 그러셨어요 (확인)**

<F07007>

위의 연속체는 가족치료의 변화 확인 단계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최소의 기능구조로 평가된다. 즉 이 구조는 실제 대화에서 그대로 실현되기도 하지만 때때로 또 다른 보조 대화연쇄의 삽입을 통해서 복잡하게 전개되기도 한다.

- 대화연속체: 변화 확인 질문 - 비명시적 대답 - 질문의 상세화 - 명시적 대답 - 확인

<사례 13> :

상담자: 요즘 따남하고 엄마하고의 관계는 어떻다고 보세요?(**변화 확인 질문**)

내담자: 서로 트러블은 없는 것 같아요(**비명시적 대답**)

상담자: 그 전보다 관계가 좋아졌는지 어떤지? 좋아졌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아졌는지 예를 하나 들어주시겠어요?(**질문의 상세화**)

내담자: 돈에 관한 일이 생기면, 또 혼자서 속을 썩곤 하는데 옛날처럼 바로바로 화내고 그러진 않아요(**명시적 대답**)

상담자: 그래요! (**확인**)

<F07003>

- 대화연속체: 변화 확인 질문- 비명시적 대답 - 확인 질문 - 명시적 대답 - 확인

<사례 14> :

상담자: 요즘은 언니와 사이가 어때? (**변화 확인 질문**)

내담자: 잘 해줘요(**비명시적 대답**)

상담자: 언니와 서로 대화를 잘 나눈다는 것이냐?(**확인 질문**)

내담자: 예, 그래요(**명시적 대답**)

상담자: 그래?!(**확인**)

<사례 13>과 <사례 14>에서 내담자의 비명시적 대답은 상담자의 구체적 질문과 확인 질문을 야기하고 이에 내담자는 상담자가 원하는 명시적 대답을 하게 된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비명시적 대답의 기준은 상담자가 결정하며 음성적으로 불명료하거나 또는 내용적으로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음은 내담자의 되물기를 통해서 확대되는 대화연속체를 보자.

- 대화연속체: 변화 확인 질문 - 되물기- 질문의 상세화 - 명시적 대답 - 확인

<사례 15> :

상담자: 지금 본인하고 아빠하고의 관계는 어때요?(**변화 확인 질문**)

내담자: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말씀하시는지? (**되물기**)

상담자: 지금 아빠하고 대화는 잘 되고 있어요? (**질문의 상세화**)

내담자: 네, 그전에 비해서 괜찮아요 저번에 한 3주 동안 아빠랑 등산 다니면서 되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원래 말이 많지 않은데, 계속 종알거리니까 아빠가 좀 놀랐었다고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구요 그 때 이후로 아빠가 말을 잘 들어주세요(**명시적 대답**)

상담자: 그래요! (**확인**)

<F07003>

위의 사례 역시 실제 대화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대화연속체로서 상담자의 변화 확인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내담자가 되물기를 시도함으로써 전체 구조가 확대된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상담자의 변화 확인 질문에 대해 내담자가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묵하는 경우로서 실제 대화에서는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 대화연속체: 변화 확인 질문 - 비대답(침묵) - 재 질문 - 명시적 대답 - 확인

<사례 16> :

상담자: *하하, 아버지 안하고 계시네, 계속 하라고 하는데, 한 번 해보세요 번쩍 드세요 하하 하, 아, 아버지가 너무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네요 연주야 그자? 그래요, 어, 이 시간이 가족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구요.* (변화 확인 질문).

내담자:(비대답/침묵).

상담자: *저와 함께한 시간이 실제로 가족에 도움이 되었는지요?* (재 질문)

내담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명시적 대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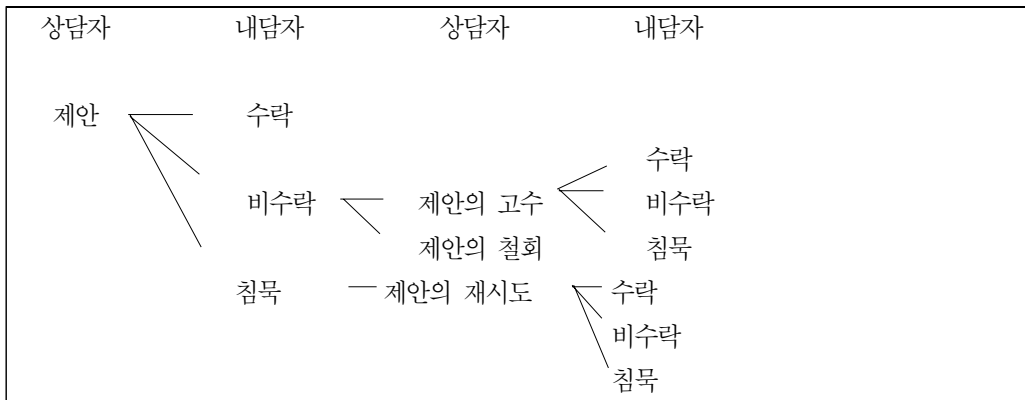
상담자: *그래요!* (확인)

<F07008>

위 사례에서 상담자의 변화 확인 질문에 대해 내담자는 이것이 질문인지 단순한 의견인지 이해하지 못해서 구체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상담자는 보다 구체적으로 변화 확인을 위한 질문을 던지고 결국 내담자는 명시적인 대답을 하게 된다.

(5) 종결단계

종결단계는 변화체험 확인단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시작될 수도 있고, 내담자 또는 상담자의 요구에 의해 갑자기 실행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종결은 목표가 달성되었거나 초기에 계약한 상담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종결을 실행하게 된다. 종결단계 역시 분위기 조성단계처럼 매우 짧게 나타나며 이 단계에서는 주로 중간단계에서 체험한 변화의 종류와 내용을 살펴보고 실생활에서의 적용을 권장하는 상담자의 제안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즉 제안-수락의 대화연속체 구조가 핵심적으로 나타난다.



<그림 6> 종결단계에서 핵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대화연속체 원형

종결단계에서는 변화 체험을 실생활에서 활용해보라는 상담자의 제안에 대해서 비수락하거나 침묵하는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안과 수락의 간단한 대화구조만을 사례로 설명하겠다.

• 대화연속체: 제안 - 수락

<사례 17> :

상담자: 이 상담기간 동안에 연습한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을 반드시 실생활에서 이행하도록 하세요(제안)

내담자: 예 (수락)

위에서 상담자는 상담기간 동안에 내담자가 체험한 변화를 실생활에서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제안을 하게 되고 내담자는 이에 수락의 의사를 밝히는 대화구조가 나타난다. 이를 통해 상담자는 상담을 종결하게 된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 지금까지 가족치료 과정을 통하여 나타나는 대화를 언어학적 대화분석 방법론 중 대화문법론을 기반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즉 대화문법론을 활용하여 상담자와 내담자 간 의사소통의 전형적인 구조인 “대화원형”을 기술하고 설명하였다. 대화원형 구축의 출발점은 가족치료가 본질적으로 지향하는 대화목적으로 이는 가족 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몇몇 핵심적인 기능단계를 거쳐서 실현될 수 있으며, 이는 초기단계, 중기단계, 종결단계로 나누어진

다. 초기단계에서는 분위기 조성단계와 가족사정단계가 포함된다. 중기단계는 인식변화 유도단계와 변화체험 확인단계를 포함하고, 이러한 단계를 거쳐 결국 상담의 종결단계를 갖게 된다. 아울러 각각의 기능단계는 단계적 대화목적에 상응하는 대화연속체를 갖게 되고, 이러한 연속체는 각 기능단계에서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대화연쇄 가능성들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각각의 연속체 유형들은 가족치료의 실재를 온전히 반영하기에는 많은 한계점들을 갖는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자들이 제시한 대화원형은 일대일 대화에 초점을 두고 두 대화상대자들 사이에 전개될 수 있는 최소한의 합리적 기능구조만을 설명할 뿐이다. 실제로 가족치료에서의 대화는 상담자와 내담자 뿐만 아니라 상담자와 가족성원들 그리고 가족성원들 간의 대화 등 매우 다양한 대화의 구조를 가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자와 내담자 또는 가족성원 간의 일대일 대화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만약에 상담자와 2인 이상의 가족성원들과의 대화내용에 대한 대화분석을 하게 된다면 매우 다양한 형태의 대화원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화의 기능구조에 대한 분석은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리라 본다. 또한 본 연구의 대화원형에서는 실제 가족치료에서 보이는 특정한 치료모델에 따른 대화의 전개구조들은 반영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원형의 구축은 분명히 가족치료에 대한 새로운 분석 방법론을 제공하고 기존의 가족치료에 대한 분석이 갖는 단점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기존의 가족치료에 관한 연구들은 귀납적인 분석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개별 사례들을 정밀하고도 정확하게 분석하여 상응하는 설명의 틀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분석은 대개 가족의 문제점과 원인, 해결책 그리고 이러한 해결책의 효과 등을 파악하고 설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치료에 대한 분석에서 가족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 이루어졌으며,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변화시키기 위해 상담자가 내담자와 가족성원 간에 어떤 대화연쇄구조를 가졌는지 그리고 이런 구조가 뒤따르는 대화연쇄에서 어떤 긍정적 결과로서 나타났는지는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런데 대화원형은 바로 대화연쇄에서 나타나는 가족의 문제, 극복을 위한 해결책 그리고 효과 등을 파악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대화원형은 특정한 개별 사례를 분석하기 이전에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 가족치료를 하나의 소통 유형으로 보고,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구조의 측면에서 가족치료를 구조화시키고,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가족치료를 기능적으로 조망해볼 수 있다는 것은 상담자나 또는 예비상담자가 상담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대화원형은 가족치료 구조화의 초보단계에 불과하다. 실제 가족치료의 구조를 온전히 반영하기 위해 다각도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다음의 연구에서는 상담자와 핵심 내담자 이외에 보조내담자의 대화 참여가 대화연쇄에서 어떤 역동적 모습을 보이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어떤 대화유형이 발견되는지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특정한 치료모델이나 상담자 개인의 전략에 따른 보다 확대되고 세밀화된 대화연쇄의 틀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지시적 상담모델”에서는 어떤 대화구조가 전형적으로 나타나며, 상담자가 공감전략을 중시할 경우 대화원형의 어떤 연속체 유형들이 전형적으로 사용되고 아울러 대화원형에서 나타나지 않는 연속체 유형들이 무엇인지 밝히는 작업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차후 보완될 이러한 과제들을 위해서 대화원형의 구축은 중요한 토대이며 가족의 문제를 대화연쇄

의 차원에서 파악하고 설명하며 해결점을 찾기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의미 있는 연구결과라고 본다.

참고문헌

- 고문희·김춘미·문진하·이명선 역. 2005. 『대화분석: 상호작용 내 대화연구』. Psathas, G. 1993. *Conversation Analysis: The Study of Talk-in-Interaction*. 서울: 군자출판사
- 김길문·정남운. 2004. “초보 상담자가 상담회기 내에 경험한 어려움과 대처과정 :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16(1): 1-20.
- 김정택. 1995. “해결중심적 단기가족치료의 원리와 치료전략”. 『인간이해』 16: 1- 20.
- 김혜숙. 2003. 『가족치료의 이론과 기법』. 서울: 학지사.
- 박용익. 2001. 『대화분석론』. 서울: 역락.
- 박용익 역. 2006. 『이야기 분석』. Hoene/Deppermann. 2004. *Rekonstruktion narrativer Identität*. 서울: 역락.
- 박은희·성영모·이명희. 2004. “인지행동 가족치료”. 『서강교육 학술마당』 99-128.
- 박일환. 2003. “가정의학과 전공의의 진료실 면담의 대화 분석”. 『가정의학회지』 24: 612-619.
- 박태영. 2006. “가족치료에 있어서의 전통모델과 구성주의 모델에 대한 비교연구”. 『숭실대 사회과학논총』 8: 199-217.
- 백미숙·우상수 역. 2008. 『의사와 환자의 대화』. Linus Geisler. 2002. *Doctor and patient a partnership through dialogue*. 서울: 백산서당
- 봉일원. 2000.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상담대화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 커뮤니케이션 트레이닝이론의 발전을 위한 기본이론의 제시”. 『독일문학』 76(1): 377-394.
- 손유미·정남운. 2005. “초심상담자와 내담자의 조기종결 경험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7(3): 523-545.
- 엄예선. 1994. “가족치료의 초기과정을 이끄는 방법”. 『한국사회복지학』 23: 261-286.
- 유명이. 2006. “가족치료 첫 회기에 대한 대화분석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8: 227-256.
- 유명이. 2007. “가족치료 상담자의 공감반응을 위한 언어적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0: 399-428.
- 이두원. 2000. “의사-환자간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대한 대화분석 연구”. 『한국언론학보』 45(1): 232-265.
- 이두원. 2002.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대한 대화분석 연구: 의사소통 문제의 유형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0(2): 7-46.
- 이영분·신영화·권진숙·박태영·최선령·최현미. 2008. 『가족치료: 모델과 사례』. 서울: 학지사.
- 이장호. 1990. “초기상담의 중요성과 기초면접 기법”.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대학생활연구』 8(1): 5-20.
- 이창덕. 1998. 국어교육과 대화분석. 『한국초등국어교육』 14(1), 39-64.
- 이화여대 사회사업학과. 1997. 『가족치료 총론』. 서울: 도서출판 동인.
- 정문자·정혜정·이선희·전영주. 2007. 『가족치료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조용길. 2006. “상담대화의 유형 연구: 가족치료 대화의 유형학적 위상과 하위분류 가능성을 중심으로”. 『독어학』 14: 203-224.
- 한승호·한성열 역. 1998. 『카운슬링의 이론과 실제』. Carl Rogers. 1902.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서울: 학지사.

- Coutuer, S. J., and W. Sotherland. (2006). "Giving advice on advice-giving: A conversation analysis of Karl Tomm's practic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2: 329-344.
- Friedlander, M. L., L. Heatherington, and A. Marrs. 2000. "Responding to blame in family therapy: A constructivist/narrative perspective".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8: 133-146.
- Gladding, S. T. 2002. *Family therapy: History, theory, and practice*.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Merrill Prentice Hall.
- Haley, J. 1976. *Problem-solving therapy*.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Hundsnurscher, F. 1994. "Dialog-Typologie". 203-239. In *Handbuch der Dialoganalyse*, edited by Gerd Fritz and Hundsnurscher(Hrg.) Tübingen: Niemeyer.
- Ratliff, D. A., K. S. Wampler, and G. H. Morris. 2000. "Lack of consensus in supervision".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6(3): 373-384.
- Strong, T. 2003. "Engaging reflection: A training exercise using conversation and discourse analysis".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43(1): 65-77.

A Study on Functional Structure in Conversation of Family Therapy

Cho, Yong-Gi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s of Humanities)

Yu, Myung-Yee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s of Humanities)

Park, Tai-Young

(Soongsi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dialog sequence prototype that was the structure of communication, which could be shown in family counseling conversation between therapists and clients. The study was intended to review the process stages of family counseling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divided functional phases into 'atmosphere formation phase', 'family evaluation phase', 'persuasion phase of cognitive change', 'confirmation phase of change experience', and 'termination phase'.

The study selected two family therapists and 30 clients for research objects. They allowed data collections for the study after the explanation about the research objects. The transcribers were trained by the consent of transcription, which used particular symbol for verbal and nonverbal contents in conversation. The transcribed data were analyzed by dialog grammar, one of the linguistic dialog analysis method developed by Hundsnurscher(1994).

This study described and explained dialog sequence prototype that displayed in conversation between family therapist and client through the total sessions in family therapy. The study found three types of dialog sequence prototype in 'atmosphere formation phase', eight types in 'family evaluation phase', nine types in 'persuasion phase of cognitive change', eight types in 'confirmation phase of change experience', and eight types of 'termination phase'.

Even if the dialog sequence prototype mentioned above cannot be applied to the process of family therapy at its face value, these findings may contribute to beginners in counseling and graduate students majoring family therapy to do practice in counseling. The research has a limitation in which the study investigated dialog sequence prototype of conversation in two persons. Future research needs to include dialog sequence prototype of conversation among more than three persons. Specifically, when a family therapist do family counseling,

he/she treats more than three family members as usual. Therefore, the researchers hope that future study investigates dialog sequence prototype between therapist and client, client and client, among therapist, client and other family members.

Key words: dialog sequence prototype, structure of communication, functional phases, dialog grammar, linguistic dialog analysis methods

[논문 접수일 : 2008년 9월 23일 게재 확정일 : 2008년 10월 29일]